

영광, 2022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노후·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일환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군내 노후·위험시설, 생활밀접시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해 위험 시설물과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며, 올해는 이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국가안전대진단, 위험시설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이 중 국가 안전대진단은 핵심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노후·위험시설, 생활밀접시설 등 총 7개 분야 57개소와 주민신청제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

소관부서, 민간전문가,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별로 점검한다.

군은 안전진단 기간 건축물·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와 안전점검체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생활안전 전 분야에 안전을 점검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및 이용금지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의 군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 등 실효성 있는 추진과 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사후관리 책임제 도입 등 후속 조치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진단 기간 동안 자율점검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 위험 요소 신고 등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읍·면·동장 참석' 달라진 나주시 업무회의

나주시가 매주 현안업무회의에 읍·면·동장 참석을 정례화해 눈길을 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사회의실에서 남평읍, 금남동, 이창동, 빛가람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 주요 현안업무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달부터 주초 현안업무 보고 체계를 기존 부시장과 국·소·실, 주요 부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개편했다.

앞서 매달 초 진행되는 월중 업무 보고회의 역시 20개 읍·면·동장 참석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있어 읍·면·동 실정과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윤시장의 현장 중심 행정 의지가 반영됐다.

여기에 회의 명칭을 기존 간부회의에서 현안업무회의로 바꿨다. 회의 형식 또한 단순 나열식 업무 보

고를 탈피하고 핵심 현안을 간략히 보고한 후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윤 시장은 지난 달 민선 8기 출범 후 첫 부서 업무 보고회를 통해 "시민을 위한 성과행정, 시민에 의한 참여행정, 시민을 향한 소신행정을 최우선하고 공리를 통해 해법을 찾는 문제해결형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이날 총무국, 미래전략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예산실, 감사실과 각 읍·면·동 주간 주요 현안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청취·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읍·면·동장은 '지식전 수질복원 및 환경정비'(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건의사항 4건 조치'(금남동), '택지 지구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이창동), '통별 담당직원제 편성 운영'(빛가람동) 등을 보고·요청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신청자 모집

담양군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농업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2023년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9월 6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함에 따라 담양군과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공지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촌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영체 20곳을 선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추천하며, 신청자격은 도내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전업적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 이외 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2023년도 사업으로 경영체당 2천만 원 내외로 (도비 100%) 지원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에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분야 신규창업, 1차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포함) 등으로 사업 확장, 기존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정진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화순군보건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연계해 의회동 4층 대회의실과 행복민원과 앞 이동헌혈차량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사랑의 헌혈' 행사...생명 나눔 실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화순군보건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연계해 의회동 4층 대회의실과 행복민원과 앞 이동헌혈차량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민, 공직자 등 112명이 헌혈을 신청해 적합자로 판정된 71명이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에 동참했다.

안중옥 마라톤세상 대표를 비롯한 헌혈행사 참여자들은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헌혈증 113장을 기증했다. 안중옥 마라톤세상 대표는 헌혈증서 100매를 기증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에 동참해 주신 직원과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행사로 헌혈 기부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군보건소는 매년 기부 받은 헌혈 증서를 모아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백혈병 환자 등을 위해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호경 기자

장성무궁화공원, "나라꽃 구경 오세요"

장성무궁화공원 무궁화가 개화시기를 맞아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군에 따르면 공원 조성 1년여 만에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 7월부터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해 광복절 전후로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장성무궁화공원이 자리한 곳은 장성을 장성공원 잔디광장이다. 지난해 10월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했다. 군이 부지 제공과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두산그룹은 묘목 구입과 식재를 맡았다.

공원 내에 3·1운동열사장성의적비와 6·25참전용사기념탑이 있어, 무궁화공원 조성으로 호국보훈의 상징성이 더해졌다.

웅장한 규모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9천500㎡ 부지에 무려 46개 품

종 1만 1천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됐으며, 공원 한편에는 100개 품종의 무궁화로 구성된 품종원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한 자리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공원은 전국적으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장성군은 산림청 무궁화동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포함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원 일원에 무궁화를 추가 식재했다.

장성군은 장성무궁화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망대 등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해 손꼽히는 무궁화 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무궁화공원이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